

Yesterday with the dawn
I left through the typhoons
Over the sea of Joseon

And the sea of Joseon
gave me the shell of a mussel
even bigger than the hull of my boat.

And the sea of Joseon
through the waves and scum, yelled :
« bring it to the Belgians »

내일 새벽과 함께
나는 태풍을" 지나 떠날 것이다.
조선의 바다위로

그리고 조선의 바다는
내 보트의 선체보다 훨씬 큰
홍합 껍질을 나에게 주었다.

그리고 조선의 바다는
파도와 거품을 통해, 소리 쳤다.
"벨기에에 이것을 가지고 가